
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생산적 금융• 신뢰받는 금융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1.24(목)	
	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남 동 우(02-2100-2850)	담당자	권 민 영 사무관 (02-2100-2853)		

제 목 : 새로운 COFIX 도입시 대출금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

◆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(조달금리)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함에 따라 현행 COFIX에 비해 낮게 선정된 것임

* 리스크프리미엄 : 은행의 조달금리- 기준금리(코픽스 등)

-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리스크프리미엄이 올라가 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(예: 조달금리> 기준금리)
- 은행이 결제성 자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조달금리 역시 낮아지므로, 대출금리가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□ 한국경제(1.24일) 「은행 “새 코픽스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”」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, 현행보다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시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,

* 대출금리 = 기준금리(COFIX 등) + 가산금리(리스크프리미엄 등)

-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(코픽스 등)의 차이이며,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COFIX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, 실제 조달금리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음

* 또한, 실제 많은 은행들은 현재도 리스크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

□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,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가산금리에 대해 일일점점 중이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